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동향	02
2. 국외 항만 동향	10
3. 품목 및 산업 동향	15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
- 광양항, 산업중핵항만(Industrial Core Port) 구축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확대
- 군산항, 기아자동차 군산사무소 철수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중국 광저우항, 유럽항 해상·철도 운송 서비스 개시
- 호주 멜버른항, 항만-내륙철도 연계 프로젝트 추진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세계 최초 해상 메탄올 벙커링 실시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목재, 합법목재 수입을 위한 인도·우루과이·미얀마에 대한 신규 표준지침 마련
- 철재, 중국 철강 증치세 환급 폐지
- 석탄, 중국 역대급 황사로 석탄 공급제한 추진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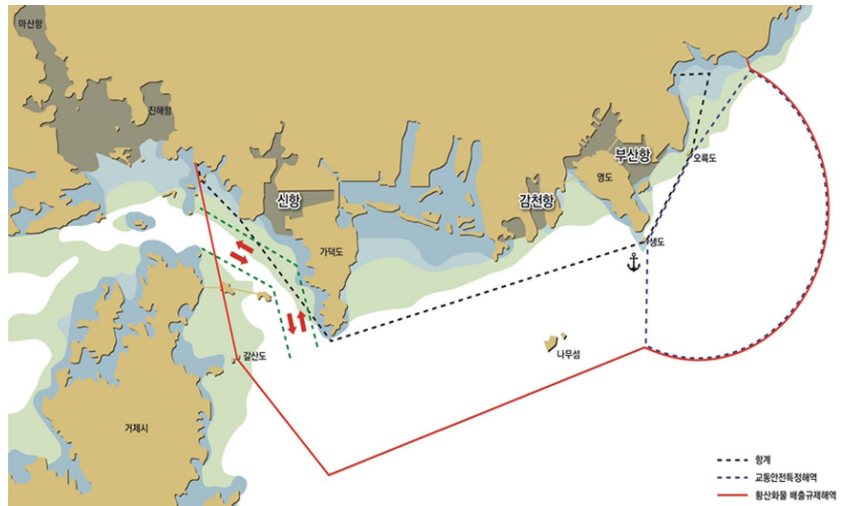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선박 미세먼지 대책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예정임

- 부산항은 지난 '19년 12월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국제 기준인 0.5% 보다 더욱 강화된 0.1% 이하로 규제를 적용, 시행하고 있음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적용시점의 경우 1단계 시행시기('20.9)에는 '정박·계류 중'이었던 반면, 2단계 시행시기('22.1)에는 '지정 해역 진입시'로 확대할 예정임

올해는 신규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와 환경단체 등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규제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임

- 부산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관한 내용을 항행통보 등 정보지에 게재하여 선박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예정임
- 또한 산·학·연 전문연구회를 통해 환경규제 대응 실태를 파악하고 환경단체와 현장점검 등을 진행하여 정책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임

부산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4.19.), https://www.portbusan.go.kr/board/boardView.do?MENU_ID=M0000032&CATEGORY_CD=A&selectPage=1&SEARCH_CODE=&SEARCH_WORD=&ORD_NO=11914(2021.05.14. 검색)

자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4.19.), https://www.portbusan.go.kr/board/boardView.do?MENU_ID=M0000032&CATEGORY_CD=A&selectPage=1&SEARCH_CODE=&SEARCH_WORD=&ORD_NO=11914(2021.05.14. 검색)



② 부산항만공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추진²⁾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소기업의 상생협력 사업 일환인 2021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 해당 사업은 부산항 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 공정에서 물류·자재관리에 이르기 까지 제조현장에 ICT기술을 도입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지원함

금년도 사업 지원대상은 부산 및 경남 소재의 제조업종 소기업이며 12개사를 최종 선정하여 전문 컨설팅 기관과 함께 사업을 지원할 예정임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항이 될 것이라 밝힘

- 부산항은 지난 5월 10일 항만 공기업 최초 ESG 경영전략을 선포하여 사회적 가치를 항만 경영에 도입함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5.12.),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idx=26300&mCode=MN1445\(2021.05.14. 검색\)](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idx=26300&mCode=MN1445(2021.05.14. 검색))



2) 인천항

① 인천항~태국을 잇는 국적 선사의 신규 컨테이너 정기노선 개설³⁾

🌊 인천항만공사(IPA)는 국적선사인 고려해운, 천경해운, 남성해운의 NKT 서비스가 5월 24일부터 운영된다고 밝힘

- NKT(New Korea Thailand)서비스에는 1,500~1,600TEU급 선박 3척이 투입되며 인천항~광양항~부산항~홍콩항~세코우항~람차방항~방콕항~람차방항~호치민항을 주 1회 기항함
- 인천항과 태국을 잇는 컨테이너 신규항로는 인천항~중국~베트남~태국을 동시에 기항하는 서비스로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NKT 서비스는 '21년 인천항에 신규 개설된 3번째 컨테이너 항로로 이로써 인천항의 컨테이너 정기 서비스는 총 65개(카페리 항로 10개 포함)가 됨

② IPA, 중국 상해 현지에서 중국 단둥지역의 화물증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시행⁴⁾

🌊 IPA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단둥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천항의 물류환경을 설명하고 시장현황을 공유함

- 설명회 이후 한-중 FTA 활용, 인천~단둥 페리서비스 활용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와 관련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됨
- 화물증대를 위한 세일즈 외에 한-중 해상교역 활성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설명회도 KOTRA와 공동으로 개최함
- 인천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 사무국을 운행중인 IPA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해외 고객관리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5.24.),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8769&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1.05.24> 검색)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5.17.),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8676&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1.05.21>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를 통해 산업중핵항만(Industrial Core Port)으로 구축⁵⁾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개발(주)과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함

- YGPA는 산업중핵항만이란 전체의 산업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산업과 항만물류가 유기적으로 융복합되어 발전하는 항만을 의미한다고 밝힘
- 이번 협약에 따라 YGPA는 국비와 자체 사업비 포함 총 992억 원을 투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세풍산업개발로부터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33만㎡를 매입할 예정임
- 이를 통해 부족한 항만배후단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며, 우량기업 유치에 통해 약 400명의 일자리 및 6만 TEU의 물동량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YGPA는 배후단지를 통한 물동량 확대로 여수·광양항을 중국, 러시아 대륙으로 뻗어가는 Y-루트의 전초기지이자,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산업중핵항만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힘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5.06), [https://www.ygpa.or.kr/kr/ypg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893&category=\(2021.05.12 검색\)](https://www.ygpa.or.kr/kr/ypg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893&category=(2021.05.12%20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1차년도 운영 결과 발표⁶⁾

☀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은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자율참여 제도임

-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9년 12월부터 시행됨

☀ 울산항의 1차년도 대상 선박(6,959척) 중 참여 선박(1,763척)의 운항속도 준수율은 96.1%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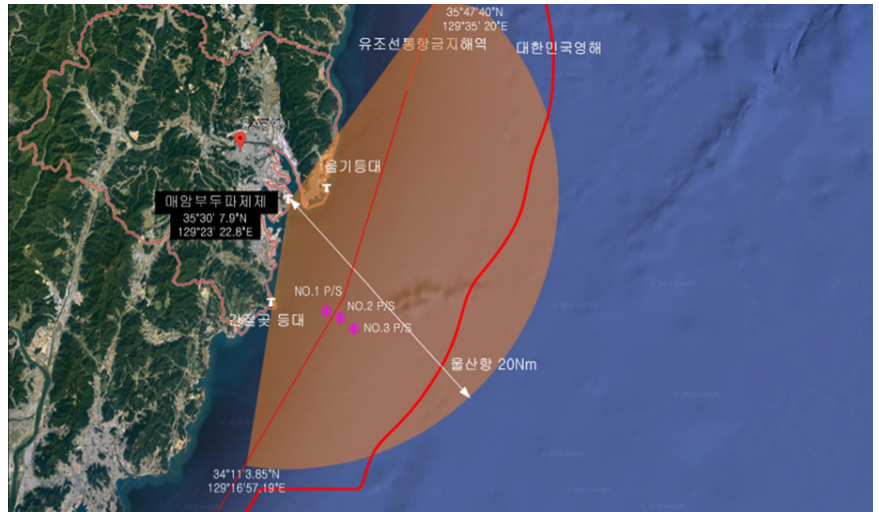
- 1차년도는 '19년 12월부터 '20년 12월까지이며 대상 선박 6,959척의 25.3%인 1,763척이 참여했으며, 이 중 운항속도를 준수한 선박은 96.1%인 1,694척으로 나타남
- VSR 운영 결과 참여한 상위 5개 선사로는 고려해운(326척), 흥아라인(207척), 현대글로벌비스(164척), 남성해운(134척), 장금상선(125척) 순으로 집계됨
- 울산항만공사(UPA)는 검증 결과에 따라 선사별 항비 감면액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각 선사로 항비 감면액을 지급할 예정임

☀ 2차년도(2021년) VSR 대상 선종은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 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칼선 중 3,000톤 이상 외항선임

6)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4.26.)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dataId=12356\(2021.05.04. 검색\)](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dataId=12356(2021.05.04.%20검색))



울산항 선박 저속운항 해역



자료: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4.26.) 참고자료,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2356(2021.05.04. 검색)

5) 평택·당진항

- 항만 대기질 저감 효과, 입출항 선박 현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대상 선종 추가 지정 및 고시 개정이 이뤄질 계획임

① 총 물동량, '21년 들어 주요 품목 증가세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⁷⁾

🌿 평택·당진항의 총 물동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 물동량 증가폭이 상승함

- 평택·당진항의 1분기 총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으며, 1월 물동량(전년 동월 대비 +1.1%), 2월 누적 물동량(전년 동기 대비 +3.7%) 대비 증가폭이 상승함

🌿 컨테이너, 액체화물,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철재는 소폭 감소함

- 컨테이너는 '20년 말 중국 신규항로 추가 개설(징탕항~웨이팡항)로 '21년 1분기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함
- 액체화물과 자동차의 '21년 1분기 물동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0%, 10.7% 증가하는 등 두자릿수 증가를 기록함
- 철재 물동량의 경우, '21년 1분기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으나, 3월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9.4% 증가하는 등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음

7)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4.27.), <https://pyeongtaek.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6516&boardKey=7&menuKey=410&currentPageNo=1>(2021.05.17. 검색)

6) 포항항

①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⁸⁾

경상북도의회 이재도 의원이 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항로 네트워크 확충과 국제 여객 선사 유치에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함

- 외항정기여객항로를 개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과 유지장려금 지급을 규정한 조례 내용을 담고 있음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5월 6일 제323회 본회의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됨⁹⁾

- 의회는 영일만항이 '22년까지 국제여객터미널 축조 사업을 통해 국제 연안 여객 및 크루즈 전용 부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인 만큼 국제 카페리 선사 유치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과 항로 확충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 확보로 항만 경쟁력 제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8) 경북일보(2021.05.02.),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496>(2021.05.14. 검색)
9) 경상북도의회(2021.05.06.), <https://council.gb.go.kr/minutes/main>(2021.05.14. 검색)

7) 대산항

① '21년도 1분기 항만 물동량 2,224만 9천 톤 처리 기록¹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1년도 1분기 전체 항만물동량이 전년(2,400만 3천 톤) 대비 7.3% 감소한 총 2,224만 9천 톤이라고 발표함

- 항만 물동량 중 비컨테이너 화물은 2,204만 5천 톤으로 전체 물동량의 약 99%를 차지하였으며, 컨테이너 화물은 20만 4천 톤을 처리함
- 비컨테이너화물의 경우 석유정제품 951만 5천 톤, 원유 722만 1천 톤, 유연탄 259만 6천 톤으로 구성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 0.4%, 10.6% 감소함
- 또한 총 컨테이너 물동량은 1만 7,737TEU이며, 이 중 공컨테이너는 6,971TEU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8%, 23.2% 감소함
- 물동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데에는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 영향, 에너지 수급정책 및 미세먼저 저감대책 등의 영향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10)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4.22.), <https://daesan.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7985&boardKey=66&menuKey=472&currentPageNo=1>(2021.05.12. 검색)



8) 동해·목호항

① 해상안전 특별단속 시행¹¹⁾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전국 무역항에 대한 해상안전 특별단속 일정(5/10~5/21)에 맞춰 동해·목호항의 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함

- 주요 단속내용은 항만시설 무단사용, 유류오염 및 유해물 해상 투기 행위, 불법 선박수리 및 개조하는 행위 등 항만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위반행위임
- 특히, 동해항 신항만 공사 관련 예부선의 화물과적 운송 및 항로상 출입항 선박의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함
- 또한 위험물 하역시 안전조치 미 이행, 자체 안전관리계획 미 준수 행위 및 항만수역에서의 불법 어로행위도 중점 단속사항임

11) 동해지방해양수산청(2021.05.06.), [https://donghae.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8134&boardKey=7&menuKey=428&currentPageNo=1\(2021.05.18. 검색\)](https://donghae.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8134&boardKey=7&menuKey=428&currentPageNo=1(2021.05.18. 검색))

9) 목포항

① 전남도청, 목포신항에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¹²⁾

☀ 전라남도지사는 6일 목포시를 방문하여 48조 원 규모의 8.2GW 서남해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위한 지원부두와 배후단지를 목포신항에 조성하겠다고 밝힘

- 서남해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조성에는 2,1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인근 대양산단에는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해 해상풍력 물류 중심지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진기지로 만들 계획임
- 목포항은 제4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을 통해 '서남권 지역 핵심산업 지원항만' 육성 계획이 반영됐으며, '30년까지 국비 8,49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

12) 전라남도청 보도자료(2021.04.06.), [https://www.jeonnam.go.kr/M7116/boardView.do?seq=1947393&infoReturn=&menuId=jeonnam0202000000&displayHeader=&searchType=1&searchText=%EB%A9%A9%ED%8F%AC%ED%95%AD&pageIndex=1&boardId=M7116&displayHeader=\(2021.05.17. 검색\)](https://www.jeonnam.go.kr/M7116/boardView.do?seq=1947393&infoReturn=&menuId=jeonnam0202000000&displayHeader=&searchType=1&searchText=%EB%A9%A9%ED%8F%AC%ED%95%AD&pageIndex=1&boardId=M7116&displayHeader=(2021.05.17. 검색))



10) 군산항

① 군산항 내 기아자동차 군산사무소 5월 1일자로 철수¹³⁾

기아자동차의 군산항 야적장 계약 4월 말 종료, 수출물량 감소와 물류비 절약을 위해 군산사무소도 철수함

-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국외로 수출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군산항 야적장의 계약이 4월 말에 종료됨
- 기아자동차는 야적장 사용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2000년부터 기아자동차의 수출 업무를 맡았던 군산사무소까지 철수함
- 기아자동차는 국외 공장의 자동차 생산량 증가로 인해 국내생산 수출물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물류비 감소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힘
- 군산시가 수출 차량 한 대당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협상을 추진했으나, 기아자동차 측에서는 보조금을 받더라도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군산사무소의 폐쇄를 번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임

최대 10만 대까지 수출되던 기아자동차 물동량이 타항으로 전이됨에 따라 군산항의 물동량 감소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13) 전북도민일보(2021.05.5.),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067> (2021.05.24. 검색)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광저우항, 유럽항 해상·철도 운송 서비스 개시¹⁴⁾

- 광저우항은 지난 5월 6일 폴란드로 향하는 해상·철도 운송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열차는 해상으로 운송되는 노선보다 20일 빠른 15일 후에 폴란드에 도착할 예정임
- 광저우와 베트남 LG공장에서 생산된 고급 전자제품 약 1억 5,000만 위안(약 2,320만 달러) 상당의 화물을 실은 50대의 화물열차가 폴란드로 출발함
- 광저우 항만그룹 총 지배인은 향후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인 국제물류통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중국-유럽 화물열차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상 및 항공 운송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물류를 안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② 닝보-저우산항, 제6항만구역 건설 설명회 개최¹⁵⁾

- 지난 4월 23일, 저장성에 위치한 이우시는 제6항만 구역 건설을 통해 닝보-저우산항의 항만 기능을 업그레이드 이전하겠다는 설명회를 개최함
- 이우시는 독일 뒤스브르크항과 함께 배후지역을 확장하고 항만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제6항만구역을 건설 중임
- 이우시는 컨테이너운영센터 건설을 추진하여 세관신고에서부터 검사·배포에 이르기까지 일체화된 통관체제를 갖추고 디지털 개혁을 위한 업무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또한 국제물류서비스 플랫폼, 물류정보서비스 플랫폼, 공급사슬부가가치서비스 플랫폼, 내륙항 혁신시범플랫폼 등 4대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임

14) JOC(2021.05.06.), https://www.joc.com/guangzhounansha-port-inaugurates-sea-rail-transport-service-europe_20210506.html(2021.05.13. 검색)

15) 코리아워킹가제트(2021.05.03.),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0165(2021.05.14. 검색)



2) 아시아

① 인도 뭄바이항,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¹⁶⁾

 뭄바이항은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및 선석 개발을 통해 컨테이너 물동량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음

- 뭄바이항의 운영사인 MBPT는 관리청으로부터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과 2개 선석을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함
- 뭄바이항은 인도 경제 발전에 따른 항만 물동량의 증가로 체선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89년 위성항인 자와할랄네루항(JNPT)이 건설됨
- 이후 JNPT는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18년 5만 TEU를 처리하는 등 세계 30대 컨테이너 항만에 진입 하였으나 뭄바이항은 1만 8,796TEU에 불과, 과거 항만의 지위가 역전됨
- 이에 뭄바이항은 이번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및 선석 개발을 통해 선박 대형화에 대응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음

② 필리핀, 2주동안 7개국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외국선원 하선 및 선원 교체 금지 실시¹⁷⁾

 필리핀 항만당국은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아랍에미리트, 오만에서 필리핀으로 기항한 선박들의 외국선원 하선을 금지시킴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변종 확산을 막기 위해 필리핀 항만당국이 '20년 12월 30일부터 2월 1일 까지 36개국의 외국선원 하선 및 교대를 일시적으로 금지한 것과 동일함
- 단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 14일 내에 위 7개 국가들에 입항한 기록이 없는 선박의 필리핀과 외국 선원은 OSS(One-Shop Stops)에 따라 하선할 수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 및 아시아 대륙과 일부 중동 국가를 방문한 외국 선원 및 선박에 대한 하선 금지조치는 향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21년 3월, 일본발 미국 수출 컨테이너 실적 2.7% 증가¹⁸⁾

 '21년 3월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월 대비 83.3% 급증함

- 미국의 데이터 분석기관인 데카르트 데이터마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년 3월 일본의 미국항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5만 8,218TEU를 기록함
- 일본에서 미국으로 직송된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4만 3,206TEU를 기록하였으며, 제3국을 통해 운송된 물동량은 1만 5,012TEU로 0.1% 감소함
- 항만별로 살펴보면 도쿄항은 2만 432TEU로 일본 전체 컨테이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나고야항이 1만 2,206TEU, 고베항 8,674TEU 등임

16) Seatrade Maritime News(2021.05.11),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logistics/mumbai-port-build-new-container-terminal\(2021.05.14. 검색\)](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logistics/mumbai-port-build-new-container-terminal(2021.05.14. 검색))

17) Seatrade Maritime News(2021.05.18), [https://www.seatrade-maritime.com/regulation/philippines-bans-international-crew-change-vessels-arriving-seven-countries\(2021.05.24. 검색\)](https://www.seatrade-maritime.com/regulation/philippines-bans-international-crew-change-vessels-arriving-seven-countries(2021.05.24. 검색))

18) JIFFA(2021.04.22.), [https://www.jiffa.or.jp/en/news/entry-7059.html\(2021.05.14. 검색\)](https://www.jiffa.or.jp/en/news/entry-7059.html(2021.05.14. 검색))

3) 미주

① 캘리포니아주 항만, 기록적 물동량 지속¹⁹⁾

🌊 캘리포니아주 주요 항만인 LA항, 롱비치항, 오클랜드항은 4월에도 기록적인 물동량을 기록하고 있음

- 소비 증가에 따른 수입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세 항만 모두 4월 물동량 기록을 경신함
- 롱비치항은 '20년 9월부터 '21년 4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물동량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LA항은 동 기간 내 6개월 간 전년 동월 대비 물동량 증가세를 보임
- 오클랜드항은 LA항이나 롱비치항보다 규모는 작으나, 두 항만의 혼잡으로 컨테이너선 일부가 오클랜드항으로 방향을 틀면서 높은 실적을 기록함
- 이 같은 수입 물동량 증가는 여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물동량 감소 후,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20년 7월부터 시작된 아시아 제조업체들의 공장 가동 정상화와 미국 내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증가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여파를 벗어나고 일상이 정상화되면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언급함
- LA항과 롱비치항 등 주요 항만에서 혼잡은 지속되고 있으나, '21년 초 60척까지 증가했던 LA항 입항 대기 선박의 수는 최근 13척으로 줄어드는 등 하역 지연이 완화되고 있음

19) The Maritime Executive(2021.05.14.),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california-ports-continue-to-see-record-volumes\(2021.05.17. 검색\)](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california-ports-continue-to-see-record-volumes(2021.05.17. 검색))



4) 유럽

①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세계 최초 해상 메탄올 벙커링 실시²⁰⁾

- ✎ NYK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메탄올 이중연료 케미컬 유조선인 Takaroa Sun호는 지난 5월 10일 로테르담항에서 세계 최초로 바지선을 이용하여 메탄올 연료 벙커링을 실시함
- 로테르담항 Vopak 터미널에서 추진된 벙커링 작업에는 TankMatch가 운영하는 벙커바지선 MTS Evidence가 투입되었음
- 메탄올 연료는 연소시 기존 벙커유보다 탄소배출량을 최대 15%, 황산화물은 약 99% 적게 배출함, 이에 차세대 연료로 각광받고 있음
- 업계에서는 적절한 안전조치가 수반된다면 메탄올도 기존 연료유와 유사한 운송-저장-벙커링이 가능하고 해운업계의 유해물질 배출량 감소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20) Seatrade Maritime News(2021.05.13.), <https://www.seatrade-maritime.com/bunkering/worlds-first-barge-ship-methanol-bunkering-port-rotterdam> (2021.05.21.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멜버른항, 항만-내륙철도 연계 프로젝트 추진²¹⁾

- ✎ 호주 남동부의 주요 컨테이너 교역항인 멜버른항은 통합된 화물 공급망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항만-내륙 연계 프로젝트인 'The Port Rail Transformation Project'를 추진함
- 해당 프로젝트는 멜버른항이 메트로폴리탄 등 지역 간 화물 허브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륙철도 인프라와 연계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멜버른 항만의 '2050년 항만 개발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장기적으로 무역 성장을 실현하고 경제 및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됨
- ✎ 약 1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기존 철도 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항만 간 철도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 ✎ 멜버른항 CEO는 내륙철도 연결은 소비자 및 기업의 장기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항만 공급망의 효율성을 위해 산업계 및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 밝힘

21) Port of Melbourne(2021.04.23.), <https://www.portofmelbourne.com/wp-content/uploads/Port-of-Melbourne-Inland-Rail-Media-Release-230421.pdf>(2021.05.14. 검색)



6) 아프리카

① 몸바사항, '21년 1분기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²²⁾

📍 케냐 몸바사항의 '21년 1분기 총 물동량은 954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38만 9,515TEU로 같은 기간 약 14.3% 증가함

-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6.9% 증가한 16만 2,504TEU,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은 6.8% 증가한 15만 6,007TEU를 기록함
- 특히 '21년 2월의 경우 하루 평균 컨테이너 처리량이 가장 높았던 '19년 7월을 제치고 역대 최대 일일 평균 컨테이너 처리량을 기록함

📍 '21년 3월 물동량 역시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기록함

- 3월 일반화물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28.4% 증가하여 348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밀과 클링커 화물이 크게 증가함
- 컨테이너 물동량은 13만 3,904TEU로 전년 동월 대비 30.4% 크게 증가하였음

22) Kenya Port Authority, <https://www.kpa.co.ke/Pages/2021Q1Performance.aspx>(2021.05.14.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① IHS Markit, 컨테이너 항만 효율성 지수 발표²³⁾

☞ 글로벌 산업 분석 및 컨설팅 기업인 IHS Markit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의 성능 및 효율성을 지수화한 CPPI(Container Port Performance Index)를 발표함

- 500개 이상 컨테이너 항만과 1,000개 이상 컨테이너 터미널의 지난 4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수치로 선박의 크기별 입항·접안·정박 시간을 비롯하여 작업량, 분당 컨테이너 이동 횟수, 시간당 크레인 이동 횟수 등을 세분화하여 효율성을 분석함
- 효율성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80%를 포함하고 있음

☞ 분석 결과 대부분 아시아 항만이 상위권에 랭크되었으며 일본의 요코하마항이 1위를 차지함

- 상위 10위권 안에 아시아 항만이 7개가 포함되었으며 50위권으로 확대 시 약 절반가량이 아시아 항만임

☞ 국내 항만의 경우 여수·광양항이 22위, 인천항 34위, 부산항 52위, 울산항 98위 등 비교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집계됨

☞ 한편, IHS Markit과 세계은행은 앞으로 분석 대상 항만을 늘리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매년 CCPI 지수를 업데이트 및 발표한다는 계획임

23) 한국해운신문(2020.05.11).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738>(2021.05.14. 검색)



2) 양곡

① 4월 곡물 수입단가 식용부문은 하락한 반면 사료용은 전월 대비 상승, 2분기 곡물수입단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상승 전망²⁴⁾

☀ 4월 식용 곡물의 수입단가는 전 부문에서 하락한 반면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는 대두박을 제외하고 상승함

- 4월 밀(식용)의 수입단가는 297달러/톤으로 전월 대비 10.0% 하락함, 옥수수(식용)와 채유용 콩의 수입단가는 각각 262달러/톤(-1.3%), 495달러/톤(-2.0%)를 기록함
- 사료용 밀(271달러/톤)과 옥수수(251달러/톤)의 수입단가는 모두 전월대비 1.5% 상승한 반면 대두박의 수입단가는 전월대비 0.3% 하락한 447달러/톤을 기록함

☀ '21년 2분기 곡물 수입단가 지수 전분기 대비 상승 전망

- 세계 주요 곡물 재고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곡물 수입 지속, 주요 곡물 생산지(북미, 남미)의 기상악화 등으로 2분기 곡물 수입단가 상승 전망
- 2분기 식용 수입단가지수(CIF, 원화지수)는 110.0으로 전분기 대비 8.5% 상승할 것으로 전망 되었으며 사료용 수입단가지수 또한 전분기 대비 9.8% 상승한 109.7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24)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월보 5월호(2021.04.30.),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5927/page/1\(2021.5.21. 검색\)](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5927/page/1(2021.5.21. 검색))

3) 시멘트

① 국토교통부, 269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 일제 점검²⁵⁾

☀ 이번 점검은 3월 발표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이며, 국가기술표준원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269개소 레미콘 생산공장을 우선 점검 하고, 하반기에는 소속 산하기관(나, 한국도로공사 등)의 생산공장을 전수 점검 할 예정임
- 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등 총 10개 기관 211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임

☀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 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자재공급원 승인 거부·취소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 할 계획임

- 자재관리 분야에서는 골재야적장 배수시설, 골재 규격별 관리, 골재혼합 발생 여부, 골재 수급 현황, 시멘트 저장 기간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임
- 공정관리 분야에서는 일일 현장배합 보정여부, 골재 운반 시 재료손실 여부, 재료 계량 적정 여부, 감시카메라 설치, 운전요원 교육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임

2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05.02.),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cmsPage=1&id=95085502\(2021.05.17. 검색\)](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cmsPage=1&id=95085502(2021.05.17. 검색))

-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품질시험 기록 관리 현황, 시험기구 교정관리 여부, 품질관리요원 배치 및 시험 방법 숙지 여부, 배합설계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임
- 시판품 조사 분야에서는 레미콘 공장 점검 시 출하차량을 임의 선정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 시험(슬럼프, 공기량, 압축강도 등)을 실시할 예정임

4) 모래

① '21년 3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41.2% 증가²⁶⁾

- ✎ '21년 3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이 모두 양호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41.2% 증가한 19조 6천억 원 을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 이번에 기록한 수주액 19조 6천억 원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94년 이래 3월 실적으로는 가장 높은 실적임
- 이러한 증가세는 '20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되고 있으며 3월에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41.2%)함
- ✎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36.0%, 민간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42.9% 증가함
- 공공수주는 '94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월 실적인 4조 5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6.0%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 민간수주는 역대 최대 3월 실적인 15조 1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42.9%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2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시장전망(2021.05.11.),
<http://www.cerik.re.kr/report/prospect#/>
 (2021.05.17. 검색)



5) 석탄

① 중국, 역대급 황사로 석탄 공급제한 추진²⁷⁾

☀️ 최근 10년 내 중국에 최악의 황사가 닥치면서 정부당국은 황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되는 석탄에 대한 공급제한 정책을 추진함

- 중국정부는 노후된 탄광을 중심으로 시설점검 등 안전실태를 재점검하고, 석탄의 공급제한을 추진함에 따라 글로벌 석탄의 공급차질 우려가 심화됨
- 이에 3월 기준, 국제유가 상승 및 석탄 공급제한에 따른 가격상승 압력이 발생하면서 연료탄 가격은 톤당 57.47달러로 전월 대비 약 3% 수준 상승세를 나타냄
- 한편, 황사로 인한 중국의 석탄 생산 축소가 결정되면서 인도네시아탄의 수요는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반사이익이 발생함

27)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4.22.),
[https://www.kores.net/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2021.05.17. 검색\)](https://www.kores.net/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2021.05.17. 검색))

6) 철광석

① 중국 철광석 가격 상승 억제책 발표²⁸⁾

☀️ 5월 10일,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철광석 가격은 톤 당 230.56달러로 전일 대비 8.6% 급등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함

☀️ 최근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과 더불어 중국·호주 양국 간 관계 악화로 인해 철광석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파악됨

-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해 철강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반면, 중국 정부는 환경정책을 위해 철강 생산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세계 1위 철광석 생산국가인 호주와 수입국가인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조사건을 두고 관계가 악화된 것도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중국철강협회(CISA, China Iron and Steel Association)는 급등하는 철광석 가격으로 인해 지난 4월 20일 중국 정부의 대책 마련 및 개입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철광석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함

- 5월 11일부터 철광석 선물 계약의 일일 한도가격 및 필요증거금을 인상하여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28)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5.12.),
[https://www.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1.05.14. 검색\)](https://www.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1.05.14. 검색))



7) 기타광석

① 동, 니켈 등 주요 광물가격, 미달러 약세 및 중국 경기개선에 따라 상승세 기록²⁹⁾

- ☀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확대정책 추진, 미달러 약세 및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위험 자산 투자수요 확대로 비철금속 가격상승압력이 발생
- 5월 1주차 전기동과 니켈 가격은 각각 전주 대비 2.0%, 5.0% 상승세를 기록함
- 특히 탈석탄 정책기조가 부각됨에 따라 차세대 원유로 각광받는 전기동의 경우 5월 1주차 기준 톤당 10,361달러를 기록하며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또한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로 사용되는 니켈 가격도 주중 톤당 18,000달러를 재돌파 하면서 시장강세가 지속되고 있음

29)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5.10.), https://www.kores.net/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1.05.16. 검색)

8) 목재

① 합법목재 수입을 위한 인도·우루과이·미얀마 표준지침 마련³⁰⁾

- ☀ 산림청은 목재 수입업계의 합법적인 수입 지원을 위해 3월 29일 인도, 우루과이, 미얀마에 대한 신규 표준지침을 마련함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 벌채 여부를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임
- 대상 품목은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임
- ☀ 신규 표준지침은 3개국의 합법목재 수입 관련 법령체계와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30) 산림청 보도자료(2021.04.22.),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57738&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5.14. 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57738&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5.14. 검색))



9) 고철

① 중국 철스크랩 시장가격 폭등³¹⁾

📌 철강호황 및 탄소중립 이슈로 인해 중국 철스크랩 시장가격은 '08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톤당 4천 위안을 돌파함

- 중국폐강철융합회사가 발표하는 철스크랩 가격지표는 톤당 4,040위안으로 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며, 역대 최고가였던 4,130위안('08.7)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중국 정부의 탄소규제 및 감산방침에도 불구하고 철광석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톤당 233달러를 기록하면서 중국 내수 스크랩가격도 동반 수직상승함
- 중국의 내수 스크랩가격 급등으로 한국 시장가격과의 격차는 이번 주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되어 철강원료 및 반제품 수입촉진을 꾀하는 중국의 수입경쟁력이 높아짐

31) 스크랩워치(2021.05.14.), <http://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53>(2021.05.16. 검색)

10) 철재

① 중국 철강 증치세 환급 폐지³²⁾

📌 중국 정부는 5월 1일부터 일부 도금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철강 수출 품목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률(13%)을 폐지함

- 수출 증치세 환급은 중국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중국 철강기업이 품목을 수출할 때 13% 부가가치세를 내고 이후 다시 정부로부터 환급받는 제도임
- 냉연압연강대, 용융아연도금강판(GI), 아연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GL) 등은 증치세 환급 폐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됨

📌 증치세 환급 폐지로 인해 앞으로 중국은 한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 기업도 중국산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국 외 다른 지역에서의 제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해당 증치세 환급 폐지로 한국으로 오는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이 기존보다 톤 당 8만~13만원이 오를 것으로 전망됨³³⁾
- 특히 중국산 수입 비중이 약 99.4%('21년 1분기)로 높은 컬러강판의 증치세 환급 폐지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32) 철강금속신문(2021.05.03.), <http://p.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3147>(2021.05.14. 검색)

33) 한국무역신문(2021.05.06.),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item=&no=73119>(2021.05.14. 검색)

📌 이와 함께 글로벌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철강재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제품의 가격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철강업계의 영업이익 증대가 기대됨



11) 자동차

① 우리나라 수소차 보급 글로벌 1위, 충전여건 열위³⁴⁾

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를 보급한 국가이나 충전 여건 미흡으로 수소차 산업의 발전 속도가 지체될 우려가 있다고 밝힘

- '21년 3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운행 중인 수소차는 전 세계 수소차의 33%로 수소차 보급률 세계 1위이나, 충전기 1기당 차량대수는 180대로 미국(1기당 224대)에 이어 두 번째로 충전인프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독일은 충전기 1기당 9대, 일본 38대, 중국 56대로 수소차 보급 대비 충전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수소차가 전기차 등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충전소 구축이 차량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충전인프라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KAMA는 수소충전소의 수, 접근성, 운영시간 등 충전 여건이 좋은 지역일수록 수소차 보급률이 높게 나타나며, 지역별 충전소 설치와 운영시간 편차로 인해 운전자의 충전소 이용 편의성에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힘
- 또한, 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한 수송부문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서는 충전소를 신속히 설치하되 지역별 편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충전소 설치에 대한 허가 혹은 승인,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보조금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함

34)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1.04.29),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493&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1.05.14. 검색)



12) 잡화

① '21년 3월 국내 기계산업, 수입 및 수출 모두 두 자릿수 증가³⁵⁾

☀ '21년 3월 국내 기계산업의 수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9% 증가한 201억 8,400만 달러, 수입 금액은 동 기간 22.6% 증가한 124억 8,100만 달러 기록

- 3월 기계산업 수출은 모든 업종에서 증가세를 나타냄, 국별로는 베트남(26.8%), 중국(16.6%), 미국(13.2%)으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3월 기계산업 수입은 정밀 기계를 포함한 모든 업종에서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임, 국별로는 미국(48.8%), 인도(45.9%)과 중국(26.8%)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35)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5월호(2021.05.13.), <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 (2021.05.21. 검색)

(단위: 백만 달러, %)

'21년 3월 기계산업 업종별 품목동향

구분	'21. 3				'21. 1~3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계산업 전체	20,184	16.9	12,481	22.6	55,563	13.9	33,050	25.9
일반기계업	4,846	9.2	4,082	25.0	12,672	-0.4	11,235	33.6
전기기계업	3,491	15.0	2,094	21.4	10,033	20.3	5,744	24.0
정밀기계업	1,716	20.5	3,070	27.8	4,716	22.8	7,945	40.1
수송기계업	9,252	22.6	2,619	18.4	25,762	20.5	6,545	8.1
조선	2,298	70.3	129	-40.2	7,146	31.1	532	-18.6
금속제품업	880	60	616	7.3	2,380	-5.1	1,580	6.2



13) 유류·화학공업생산물

①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 발전소 건설 투자협약, 6월 중순 추진 예정³⁶⁾

GS칼텍스와 한국동서발전은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6월 중순에 체결할 계획임

- 부생수소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로 석유화학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투자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수소 발전소는 여수국가산업단지에 건립될 예정으로 현재 양사가 발전소 운영 방안을 협상중임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대부분의 정유회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18년 1월 한국동서발전은 한화에너지 등과 함께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여 '20년에 완공함, 해당시설은 50MW 규모로 연간 40만 MWh의 전력을 생산함
- 현대오일뱅크도 최근 한국남동발전과 수소 연료전지 발전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향후 현대오일뱅크는 연간 10만 톤 규모의 수소를 공급할 예정임

정유사들은 향후 정유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수소 등 친환경 미래사업의 비중을 증가시킬 예정

- 현대오일뱅크는 현재 85%에 이르는 정유 사업 매출 비중을 '30년까지 40%대로 낮출 계획이며 에스오일 또한 수소사업추진과 관련된 약 82억 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함

36)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동향(2021.05.24),
[https://www.kpia.or.kr/index.php/bbs/view/id/101322/page/1/term_id/6/v_mode/user\(2021.05.24. 검색\)](https://www.kpia.or.kr/index.php/bbs/view/id/101322/page/1/term_id/6/v_mode/user(2021.05.24. 검색))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0. 5. 31

편집 겸 발행인 장영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